

野性잃은 민주당 기강해이 자성론 비등

청문회 강공 전환…초반부진 만회 총력

박지원, 경비정 동원 강기정에 구두 경고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1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며 벼르고 있지만 정작 기강해이 등으로 내부적으로 비상이 걸렸다.

당장, 10월 3일 전당대회까지 임시지휘봉을 잡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장서서 연일 군기집기나 나서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긴장감이 이완되면서 야당으로서의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낙마 대상으로까지 거론했던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의 지난 20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도중에 자리 를 뜨는가 하면 맹 빠진 공세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내정자가 호남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경력 등을 감안, '봐주기'를 한 것 아니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박원내 대표는 2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재

상임위 간사단을 길고 소집, "야당의 생명함은 치열함에 있다"며 "끝까지 투지력을 갖고 길질기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486 당권파로 꿈하는 강기정 의원이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 해경 경비정과 국정 행정선을 동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 분위기는 더욱 흥흉해졌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는 강 의원이 광주시당 위원장 선을 앞두고, 오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내부 여론을 감안, 박원내 대표도 강 의원에게 "사려 깊지 못했다"고 구두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직원 성희롱 발언 의혹과 관련, 지난 5월 당 윤리위에서 주의조치라는 '술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이강수 고창군수 사건이 최근 국가인권위에서 성희롱 판정을 받으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역풍도 맞게 된 쳐지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윤리위에서 재

심에 착수, 제명 등을 포함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도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전당대회에서의 당권을 놓고 계파별로 나뉘는 양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어

호남 민심잡기 나선 손학규

25~27일 광주·전남방문

민주당 유력 당권 후보인 손학규 전 대표가 오는 25~27일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방문, 본격적인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

23일 손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번 광주·전남 방문은 지난 15일 2년여간의 춘천 침투 생활을 마감하고 정계에 복귀한 뒤 경북 구미 방문에 이어 두 번째 지방 방문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텃밭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또한, 당 일각에서 손 전 대표 측이 정세균 전 대표와 연대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명확히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손 전 대표는 광주·전남방문을

통해 당원과 대의원들뿐 아니라 일반 시·도민과도 만나 당심과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

손 전 대표는 25일 광주에서 1박 2일 뒤 여수세계박람회와 한중 산업단지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지역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지역 위원회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광주 월드뮤직 페스티벌에 참석해 젊은이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한편 노사분규 현장도 둘러볼 계획이다. 손 전 대표 측은 "각종 여론조사기관이 광주·전남 대의원들을 상대로 당권 후보 지지도 조사를 한 결과, 손 전 대표가 큰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다"며

"광주·전남 대의원들 사이에서 민주당에 대한 변화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광주·전남방문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출

대의원대회 준비위 13명 구성

민주당 광주시당은 23일 시당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1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 운영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대의원대회 준비위 구성 방침 등을 결정했다.

준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인선은 준비위 위원장인 김동철 현 시당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다만, 시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강기정, 김재균 의원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위원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10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의 일정과 장소는 준비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일주일 전에 개최되지만 이번에는 추석 연휴와 맞물려 유동적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인선은 준비위 위원장인 김동철 현 시당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다만, 시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강기정, 김재균 의원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위원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10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의 일정과 장소는 준비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일주일 전에 개최되지만 이번에는 추석 연휴와 맞물려 유동적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인선은 준비위 위원장인 김동철 현 시당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다만, 시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강기정, 김재균 의원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위원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10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의 일정과 장소는 준비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일주일 전에 개최되지만 이번에는 추석 연휴와 맞물려 유동적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인선은 준비위 위원장인 김동철 현 시당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다만, 시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강기정, 김재균 의원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위원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10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의 일정과 장소는 준비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일주일 전에 개최되지만 이번에는 추석 연휴와 맞물려 유동적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인선은 준비위 위원장인 김동철 현 시당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다만, 시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강기정, 김재균 의원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위원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10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의 일정과 장소는 준비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일주일 전에 개최되지만 이번에는 추석 연휴와 맞물려 유동적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인선은 준비위 위원장인 김동철 현 시당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다만, 시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강기정, 김재균 의원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위원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10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의 일정과 장소는 준비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일주일 전에 개최되지만 이번에는 추석 연휴와 맞물려 유동적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인선은 준비위 위원장인 김동철 현 시당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다만, 시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강기정, 김재균 의원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위원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10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의 일정과 장소는 준비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일주일 전에 개최되지만 이번에는 추석 연휴와 맞물려 유동적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인선은 준비위 위원장인 김동철 현 시당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다만, 시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강기정, 김재균 의원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위원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10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의 일정과 장소는 준비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일주일 전에 개최되지만 이번에는 추석 연휴와 맞물려 유동적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인선은 준비위 위원장인 김동철 현 시당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다만, 시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강기정, 김재균 의원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위원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10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의 일정과 장소는 준비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일주일 전에 개최되지만 이번에는 추석 연휴와 맞물려 유동적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인선은 준비위 위원장인 김동철 현 시당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다만, 시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강기정, 김재균 의원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위원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10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의 일정과 장소는 준비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일주일 전에 개최되지만 이번에는 추석 연휴와 맞물려 유동적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인선은 준비위 위원장인 김동철 현 시당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다만, 시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강기정, 김재균 의원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위원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10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의 일정과 장소는 준비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일주일 전에 개최되지만 이번에는 추석 연휴와 맞물려 유동적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인선은 준비위 위원장인 김동철 현 시당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다만, 시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강기정, 김재균 의원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위원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10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의 일정과 장소는 준비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일주일 전에 개최되지만 이번에는 추석 연휴와 맞물려 유동적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인선은 준비위 위원장인 김동철 현 시당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다만, 시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강기정, 김재균 의원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위원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10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의 일정과 장소는 준비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일주일 전에 개최되지만 이번에는 추석 연휴와 맞물려 유동적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인선은 준비위 위원장인 김동철 현 시당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다만, 시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힌 강기정, 김재균 의원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위원회에서 1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10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의 일정과 장소는 준비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다.</